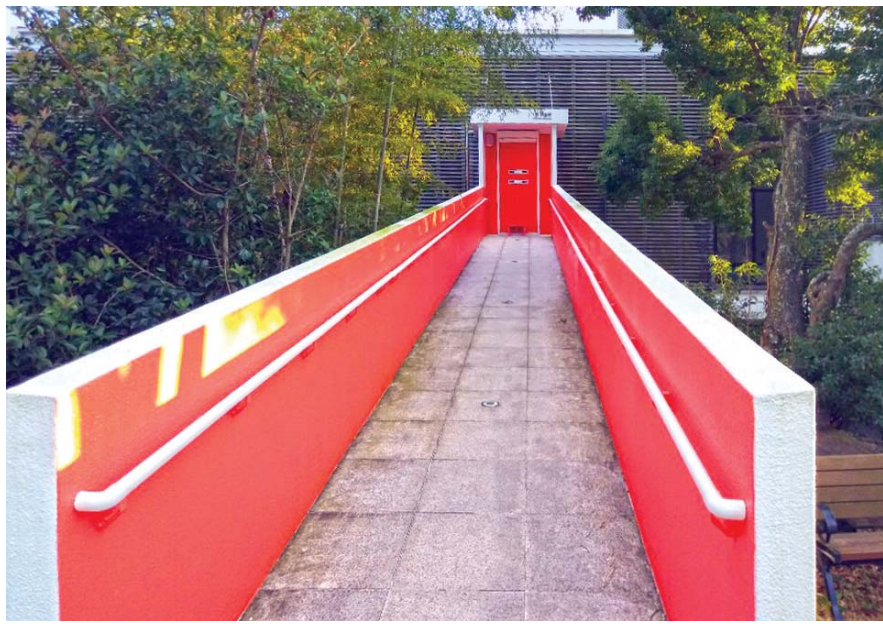


2020 제주 문화계 결산 ⑤ 문화시설(끝)

공연장 브랜드화 확산... 서귀포 미술관의 공생

코로나 영향 기획공연 줄취소
거리두기로 객석 개방 제한
무료 공연에 관객 개발 부담
제주현대미술관 1평 미술관
도서관은 승차 도서대출 실시



코로나 시국의 아이디어로 제주현대미술관 야외에 조성된 '1평 미술관'.

올 한 해 제주지역 국립 문화기반시설에서는 문을 열고 닫는 일을 반복했다. 코로나 예방 지침에 따라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이용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손을 놓고 감염병이 물러나기만을 마냥 기다린 시설도 있었지만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1평 미술관'과 같은 아이디어로 위기를 헤쳐가려는 공간도 있었다.

▶개관 10주년 제주아트센터 기념행사 타격=제주도문화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대표적 공공 공연장들은 코로나로 기획 공연에 차질을 빚었다. 그중 개관 10주년을 맞은 제주아트센터의 타격이 컸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오스트리아빈방송교향악단의 제주 투어, 소프라노 신영옥 데뷔 30주년 콘서트, 유니버설발레단의 창작발레 '심청' 등이 줄줄이 무산됐다. 서귀

포예술의전당도 '베토벤×클림트-운명의 키스'를 시작으로 기획 공연이 잇따라 취소됐다.

공연장을 개방해도 좌석 띄어앉기로 객석 수가 크게 줄었다. 현장 공연이 무료로 전환되고 온라인 중계 서비스까지 시행되면서 향후 관객 개발 부담이 늘어난 점은 코로나가 드리운 그늘이다. 문화회관에서 방역 수칙 준수를 이유로 장르를 불문하고 출연진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반면 서귀포예당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그럼에도 도전은 이어졌다. 문예회관은 온라인 공연으로 올해 처음 두 편의 작품을 초청해 뮤지컬 페스티벌을 치렀다. 뮤지컬 페스티벌은 공연장 브랜드화 사업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서귀포예당은 서귀포오페라 페스티벌 다섯 번째 무대로 '투란도트'를 공연했다. 이곳에선 시민 참여형 성악 인재 발굴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도박물관 민속자료 이관 논란 속 일대일-공립미술관-박물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긴급 재정

확보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예정된 기획전을 개최하지 못한 사례가 생겨났다. 하지만 다른 지역 국·공립미술관과 달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전시의 한계를 깨려는 노력은 드물었다.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피난지 제주 문화를 다른 전시 하나 없었다.

도립 제주현대미술관이 휴관 기간에 '1평 미술관'을 조성한 점은 그래서 눈길을 모았다. 거리두기에 착안해 야외 정원 환경에 꾸민 공간으로 소장품인 흉남기의 영상 작품 '망막'으로 개관을 알렸다.

서귀포 지역 3개 공립미술관은 각자 도생을 넘어 공동 기획전으로 '미술관 도시'를 모색했다. 사실상 첫 공동 기획전으로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3곳에서 미술관 별 주제에 맞는 지역 작가 등을 초청해 마련됐다.

민속자료 이관을 두고 수년째 갈등이 이어져온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제주돌문화공원은 지난 2월 '민속자료 이관 업무 협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을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30여 년 역사의 도립박물관 위상이 단번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남는다. 한라도서관, 우당도서관은 '북 드라이브 스루'로 이용자들의 감증을 풀어줬다. 전선희기자

공연계 한파 영상 콘텐츠로 녹인다

문화추몰락 아트락TV
라이브뮤직·1인 콘서트

감염병이 드리운 지역 공연예술계의 한파를 영상 콘텐츠로 파스하게 녹여내는 이들이 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문화네트워크 추몰락(문화추몰락, 대표 양성미)이다.

문화추몰락은 지난 27일 아트락 소극장(제주시 연신로156)에서 진행된 라이브 공연을 송출하는 등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아트락TV' 홈페이지(<http://artrockn.com/>)를 공개했다. 아트락TV는 라이브 뮤직과 1인 콘서트로 꾸며진다.

라이브 뮤직은 노래와 춤 등이 만났다. 인디밴드 소금인형의 애절한 사

랑노래 '상사화'와 춤꾼 한정수, 푸르른 방랑자의 마음을 담은 '블루 블루 노마드'와 소리계명의 댄서 최유미, 제주 고기국수 등을 소재로 한 '삶은 국수'와 마임이스트 이경식의 퍼포먼스 등이 어울린 영상이 펼쳐진다.

1인 콘서트는 라이브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단 한사람을 위한 무대로 기획됐다. 그 첫 행사로 87세 노모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딸의 사연 신청을 받아 깜짝 공연을 열었다.

이와함께 문화추몰락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밴드 '끝없는 겨울방학' 데뷔 콘서트를 SNS 라이브로 중계했다. 공연 장면은 향후 영상콘텐츠로 업로드된다.

양성미 문화추몰락 대표는 "제주 예술인들의 무대가 확대되고 창작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며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로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송재혁의 '플라워 파워'
평면·입체에 담은 희망

상은 어떤 모습일까. 갤러리 비오톱이 '플라워 파워'란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지난 23일 시작돼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첫 개인전에서 송 작가는 비극과 희극의 경계에 놓인 현실의 문

제를 회화, 조각, 사진 등에 담았다.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을 꽃에 빗대

코로나 시국에 희망을 말하려 했다. '오렌지코미디'란 예명으로 활동해 온 송 작가는 "인간이 애초에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왔

던 삶에 대해 아쉬워하기보다 수많은 선택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했다"면서 꽃의 얼굴을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캐릭터 탄생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시장 주소는 제주시 신성로6길 29. 전선희기자

갤러리ED 지상전 (2)문창배의 '시간-이미지'

풍파 견뎌온 몽돌에 잃어버린 고향



그의 그림 앞에 선 이들은 두 번 늘란다. 사진을 찍어놓은 듯 섬세한 붓질로 표현된 대상의 정교함에 놀라고, 그 한 쪽의 그림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들인 공력에 또 한 번 늘란다. '시간-이미지' 연작으로 알려진 제주 문창배 작가다.

중앙대 서양화과, 중앙대대학원 서양화과(석사)를 졸업한 문 작가는 어느 한 시절 제주를 대표하는 청년 작가로 이름을 높였다. 전업 작가로 제주를 물론 서울, 경기, 프랑스, 중국에서 열었던 개인전만 26회에 이른다. 지난해엔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에서 양화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갤러리 이디 초대전엔 50호 크기 내외의 작품 4점을 선보이고 있다. '시간-이미지' 연작으로 2018-2019년에 작업한 작품들이다.

귀향하기 전에 발표한 '시간-이미지'는 제목은 같되 지금 우리가 보는 작품과는 다르다. 당시 '시간-이미지'가 고색장연한 기와를 통해 관념 속 풍파를 그렸다면 2004년부터 천착해온 '시간-

이미지'엔 유년의 기억 속 탐동 앞바다 몽돌이 자리하고 있다.

바람과 파도를 견뎌온 몽돌의 모습은 실제론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 '피사체'이나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며 세월의 파고를 헤쳐온 우리의 삶을 은유한다. 작가는 바다에 잠기거나 반쯤 몸체를 드러낸 몽돌을 통해 고향의 상실, 존재의 원형,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사유의 순간을 나눈다.

그가 지난해 18년 만에 공모전 도전에 나선 건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시간-이미지' 시리즈를 뛰어넘어 새로운 작품 세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의 바람처럼 내년엔 신작들을 선보이는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문 작가는 앞서 제주도미술대전 2004-2005년 연속 대상, 2012년 제2회 제주초계청년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한라미술인협회, 미술협회제주도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갤러리 연락저 750-2543. 전선희기자

김택화미술관 공연·전시

3인 3색 하늘빛 수채화

김택화미술관이 '제주 랩소디-당신의 제주는 언제, 어디서부터인가?'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공연과 전시로 나뉜다. 지난 12-13일에는 제주 이야기를 담은 더 풍남, 임인건, 장필순, 산하 등의 공연이 이뤄졌다. 이달 12-30일에는 김택화, 강요배, 고길홍, 김석운, 강민석 등이 참여한 전시를 이어간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 문화지원기반 공공예술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고정순·권혜경·이장희 작가가 '하늘 빛 3인전'이란 이름으로 지난 26일부터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수채화전을 열고 있다.

고정순 작가는 순수했던 시절의 향수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등을 맑은 화면에 담았다. 권혜경 작가는 햇살이 비쳐든 바람과 돌과 꽃들의 일렁임을 표현했다. 팔손을 바라본다는 이장희 작가는 익숙한 제주 풍경을 열정적 붓질로 붙잡았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경 2020 하반기 삼양초등학교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 축

수 상	수 상	수 상	수 상	취 임	승 진	승 진	합 격	합 격
대통령표창	한마공신 김만일상	김만덕상 (봉사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한국중부발전 제주본부장	서기관	장학관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장 합 중 (14회)	강 춘 기 (21회)	김 옥 산 (22회)	이 석 근 (31회)	변 근 희 (32회)	고 성 대 (34회)	김 남 규 (39회)	김 주 현 (55회)	김 현 도 (63회)

자랑스러운 동문님들의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양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양방규 외 동문 일동